

“보양식 특수 잡아라”...유통업계 ‘복날 마케팅’ 후끈

대형마트 등 식재료 할인전 다채 롯데온, 한우·닭·전복 최대 30% ↓ 홈플러스, 17일까지 ‘복날 싸슬이’ 이마트, ‘원기회복 보양식 대전’

오는 15일 초복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복날 마케팅’에 나섰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무더위와 함께 긴 장마가 예고됨에 따라 보양식을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

롯데온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매출을 살펴본 결과 보양식 재료로 주로 찾는 ‘정육’과 ‘수산물’ 매출이 전년대비 각 20%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다가오는 복날 보양식을 즐길 수 있도록 ‘복날위크’ 행사를 준비했다.

롯데온은 ‘1+등급 한우’를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보양식 대표 식재료인 ‘삼계탕용 닭고기’와 ‘생오리 로스 슬라이스’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완도

활전복(1kg)와 ‘자포니카 민물장어(1kg)’를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무더운 여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명가 맛좋은 삼계탕(1kg·2팩)’을 한정수량으로 50% 할인 판매하며 ‘프레시지 초계국수’ 밀키트와 ‘사미헌 꼬리곰탕’ 등을 최대 25% 할인 판매한다. 보양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주로 ‘국순당 고창 명작 복분자주’와 ‘김장수 명인 금산인삼주’, ‘홍삼명주’ 등을 최대 10% 할인 판매한다.

대형마트도 초복을 겨냥한 보양식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오는 17일까지 ‘복날 싸슬이’ 행사를 실시한다. 행사 카드로 결제 시 ‘생닭(전품목)’은 최대 50% 할인, ‘수박(전품목/미니수박제외)’은 각 5000원 할인가에 맞출 수 있다. ‘춘향씨인 남원 복숭아/하늘작 중주 복숭아(4~7입)’는 각 9900원대에 판매한다. 행사카드는 신한/삼성/국민/롯데/농협/광주/전북카드(BC/법인/선불/기프트카드 제외)다.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할인도 준비했다. ‘바다장어/민물장어(500g/구이용소스 포함)’는 각 1만7000원대, 2만4000원대에, ‘호주청정우(전품목)’는 최대 40% 할인한다. ‘보맥돼 삼겹살/목심(100g)’과 ‘부채살 양념구이(600g)’는 모두 40% 할인가에 구매 가능하다. 기력 보충에 탁월한 ‘완도 전복(중/특대)’과 ‘데친 문어(300g)’는 모두 반값에 판매한다. 삼계탕 재료로 빠질 수 없는 ‘삼계 재료(3종)’는 각 4900원대에, ‘삼계삼(3입)’은 3900원대에 판다. ‘삼계삼’은 ‘생닭(행사상품에 한함)’과 함께 구매 시 500원 할인된다.

간편 조리 제품이 최저가에 준비했다. 행사 카드로 결제 시 ‘백숙재료 담은 통오리(1.6kg)’는 1만3900원대에, ‘백숙용재료 담은 토종닭(1050g/1인 2팩 한정)’은 8900원대에 판매한다. 밀키트 ‘오뚜기 옛날 삼계탕/CJ 비비고 삼계탕(900g/800g)’은 각각 7900원대, 9900원대에 선보인다.

롯데마트도 다양한 식재료를 할인된 가

격에 선보인다.

국내산 생닭 두 마리로 구성된 기획 상품의 물량을 전년 대비 20% 확대하고, 대표 상품인 ‘두마리 복닭(1.1kg)’을 15일까지 행사 카드 결제 시 40% 할인 판매한다. 삼계탕이 아닌 닭 요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국내산 닭다리 살로 만든 닭 양념 구이 2종 행사도 진행한다. 견고 추를 토포한 ‘안동식 매콤 순살찜닭(600g)’와 양배추 토핑을 곁들인 ‘춘천식 순살 닭갈비(600g)’를 준비했다. 두 상품 모두 오프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3000원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17일까지 ‘프리미엄 해신탕(1.2kg/냉장)’은 출시를 기념해 오프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전복(중/마리)’과 ‘ASC전복(마리)’을 행사 카드로 결제 시 각 50% 할인해 판매한다. ‘전복(중/마리)’의 경우 롯데온 내 롯데마트몰에서 동일하게 반값에 만나볼 수 있다.

이마트는 12일부터 18일까지 원기회복 ‘보양식 대전’ 행사를 진행한다.

여름 대표 보양식인 ‘활전복’을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활전복 중 사이즈(57g 내외)는 100g 기준 정사가 대비 50% 할인된 가격 2700원대에, 대 사이즈(73g 내외)는 50% 할인된 2800원대, 특대(106g 내외)와 왕(134g 내외) 사이즈는 100g 기준 각각 50% 할인된 3600원대, 3900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무항생제 두마리 영계(1kg, 봉, 국내산)’는 행사 카드로 결제 시 40% 할인된 6500원대에 판매하며, 백숙 부재료가 동봉된 ‘토종닭 백숙(냉장, 국내산)’은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00원 할인된 9900원대에 선보인다.

간편식 삼계탕도 최대 50%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울산 영양 삼계탕(900g)’은 8월 1일까지 50% 저렴한 5900원대에 판매되며, ‘피코크 삼계탕/백숙’ 전품목은 18일까지 정사가 대비 20% 할인 판매에 더해 2만5000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상품권을 추가 증정한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롯데백, 초복 맛이 인기상품전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12일부터 25일까지 복날 인기 상품전을 진행한다. 원기 회복을 위한 소고기를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하고 삼계탕용 백숙 닭도 초복 맛이 특가로 판매한다. 완도군 어가와 협력한 롯데백화점 단독 전복 특가전도 산지 직송 행사로 만날 수 있다. 특대 활전복(1kg·8마리)을 3만9000원대의 가격으로 선보인다. 활 민물장어, 초벌 민물장어, 문어 등 다양한 보양식 대표 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

기아차 광주공장을 상반기 생산량 증가

28만1천여대 생산 실적 최대 실적 경신 ‘청신호’

기아 오토랜드 광주 올해 상반기 자동차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지난해 54만대를 돌파하며 9년 만에 역대 최대 생산을 경신한 기아 광주는 올해도 최대 실적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11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 따르면 올 상반기 누계 생산 실적은 28만1713대(내

수 9만6669대, 수출 18만504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만9790대에 비해 0.7% 증가했다.

차종별 생산 대수는 △셀토스 8만4892대(전년비 0.5% ↑) △스포티지 11만3230대(9.9% ↑) △봉고트럭 4만7898대(9% ↓) △쏘울 3만3778대(전년비 10.4% ↓) 기타(대형버스, 군수) 1915대(전년비 0.5% ↓) 등이다.

기아차 오토랜드 광주 관계자는 “올 상반기는 스포티지, 셀토스 등 인기차종의 수요 증가로 생산량이 증가했으나 생산량

이 큰 폭으로 상승한 전년도 기저효과로 인해 0.7% 상승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생산 실적이 순항하면서 연간 최대 생산 기록 경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지난해 연간 생산량은 내수 18만7968대, 수출 35만3132대 등 총 생산 54만1100대로 공장 설립 이래 최대 생산을 달성한 바 있다.

지난해 54만1100대는 2014년 53만8896대, 2015년 53만3483대를 생산해 2년 연속 50만대를 기록한 이후 3번째이며 2014년 이후 9년 만에 역대 최대 생산을 경신했다.

박소영 기자

‘제13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오늘 개막

수공예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제13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가 12일 개막한다.

11일 광주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전통 기술과 현대적 디자인이 어우러진 도자세트, 우아한 천연염색, 개성 넘치는 섬유공예, 다양한 액세서리 등 문화 예술적 ‘끼’와 ‘솜씨’로 빛낸 다양한 수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2024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가 12일부터 3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우수 수공예품의 홍보마케팅과 판로 지원,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올해로 13회째를 맞는다.

광주지역을 포함해 전국에서 200여 공예 공방 등이 참여해 280개 규모의 전시 부스로 꾸며지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보다 10개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공예 공방 전시 부스에서는 도자기, 목공예, 섬유공예, 한지, 나전칠기 등 전통 공예는 물론

생활자기·천연비누 등 생활용품류, 천연염색·가죽 등 패션 잡화류, 반지·목걸이 등 액세서리류 등 다양한 생활공예 상품들을 선보인다.

다양한 특별관도 마련된다. △공예명품관 △광주 우수공예 브랜드 ‘오렌즈’ 홍보관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광주예선 수상작 전시관 △동남아시아 이주민 여성들이 참여하는 아시아특별관 △지역대학관 등 다양한 특별관을 선보인다. 또 한국전통문화전당은 독립부스를 꾸며 전통 한지(韓紙)의 우수성과 다양한 상품을 볼 수 있도록 ‘한지 특별관’을 운영한다.

나다운 기자

재테크 칼럼

비트코인 창시자는 사토시 나카모토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누구도 본적이 없어서 비트코인 창시자가 지어낸 가공의 인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2009년 비트코인이 세상에 등장한 후 언론계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금까지도 그를 만나본 사람은 없다. 되레 스스로 본인이 사토시라고 주장하는 몇몇 사기꾼만 등장했다. 최근에는 크레이그라이트라는 호주의 컴퓨터 공학자가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그는 과연 존재할까

그렇듯한 증거를 제시하며 본인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주장을 했고 거대비트코인 소유자들로부터 영국법원에 소송을 당해 지난 3월 사토시가 아니라는 최종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는 과연 가공의 인물일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암호학자이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할피니를 사토시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최초로 사토시로부터 테스트 용 10개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았고 이메일로 지속적으로 사토시와 교류하며 비트

코인의 기술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할피니의 비트코인 채굴방식이 사토시와 유사하고 지난 2014년 할피니가 사망한 이후 사토시로 추정되는 비트코인의 채굴이 뜸해졌다는 것도 이유다. 하지만 할피니가 사망하기 1년여 전에 세상에 쓴 ‘비트코인과 나’라는 편지를 보면 할피니가 사토시라는 추정 또한 잘못된 것 같다. 편지에서 할피니는 사토시를 정확히 3인칭으로 지칭하며 사토시에 대한 칭찬과 채굴한 비트코인을 몰려줄 유산으로 집착했다.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비트코인이라는 엄청난 신 자산을 창조해낸 창시자가 밝혀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사라졌을 것이라는 가정은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을 더욱 완벽한 자산으로 만들고 있다. 탄생부터 탈중앙화를 기치로 창조된 비트코인은 창시자조차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구속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자유롭고 주인이 없으면서도 존재를 부정할 수도 없는 완전한

자산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자산이 처음부터 사토시 나카모토가 의도적으로 만들고자 했던 자산인 것으로 생각된다.

비트코인 전문가들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영원히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사망한 할피니를 사토시 나카모토로 믿고 싶은지도 모른다. 만약 갑자기 사토시가 등장한다면 비트코인에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토시가 가공의 인물로 영원히 남아있어야만 비트코인의 완결성이 더욱 공고해진다는 사실은 가상화폐 자산시장의 재미있는 한 단면이다.